

부산시립미술관

작품리뷰 review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이용흠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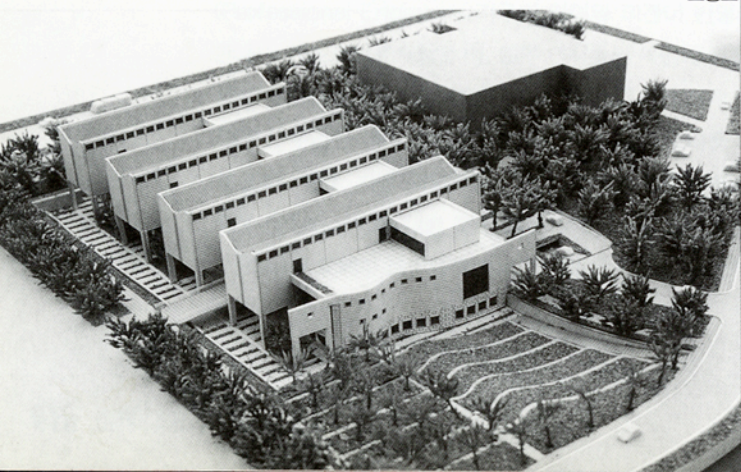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올림픽공원내)
대지면적	21,56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구조	철골조,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주차장)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면적	4,777.14㎡
연면적	21,425.70㎡
건폐율	4.12%
용적률	9.83%
조경면적	8,652.2㎡
외부마감	외벽/2.2mm알루미늄패널, 불소수지코팅 지하1층 외벽: 화강석버너마감 (포천석) 창호/24mm자외선차단 복층유리, 18mm 컬러복층유리(그린색) 지붕/㉑91샌드위치패널, 0.5mm동마감 (Standing Roof)
주차대수	승용차/153대, 버스/5대
설계담당	이길주, 이봉두, 이승엽
감리	일신설계감리단
시공사	(주)대우, 자유건설(주)
구조설계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설비	협진(주)
전기	필엔지니어링
설계기간	1993. 6. 10~1994. 7. 30
공사기간	1994. 12. 12~1998.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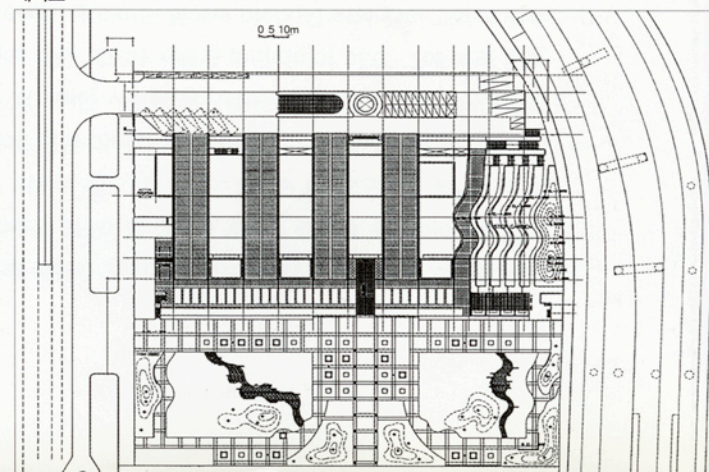


올림픽 공원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 전경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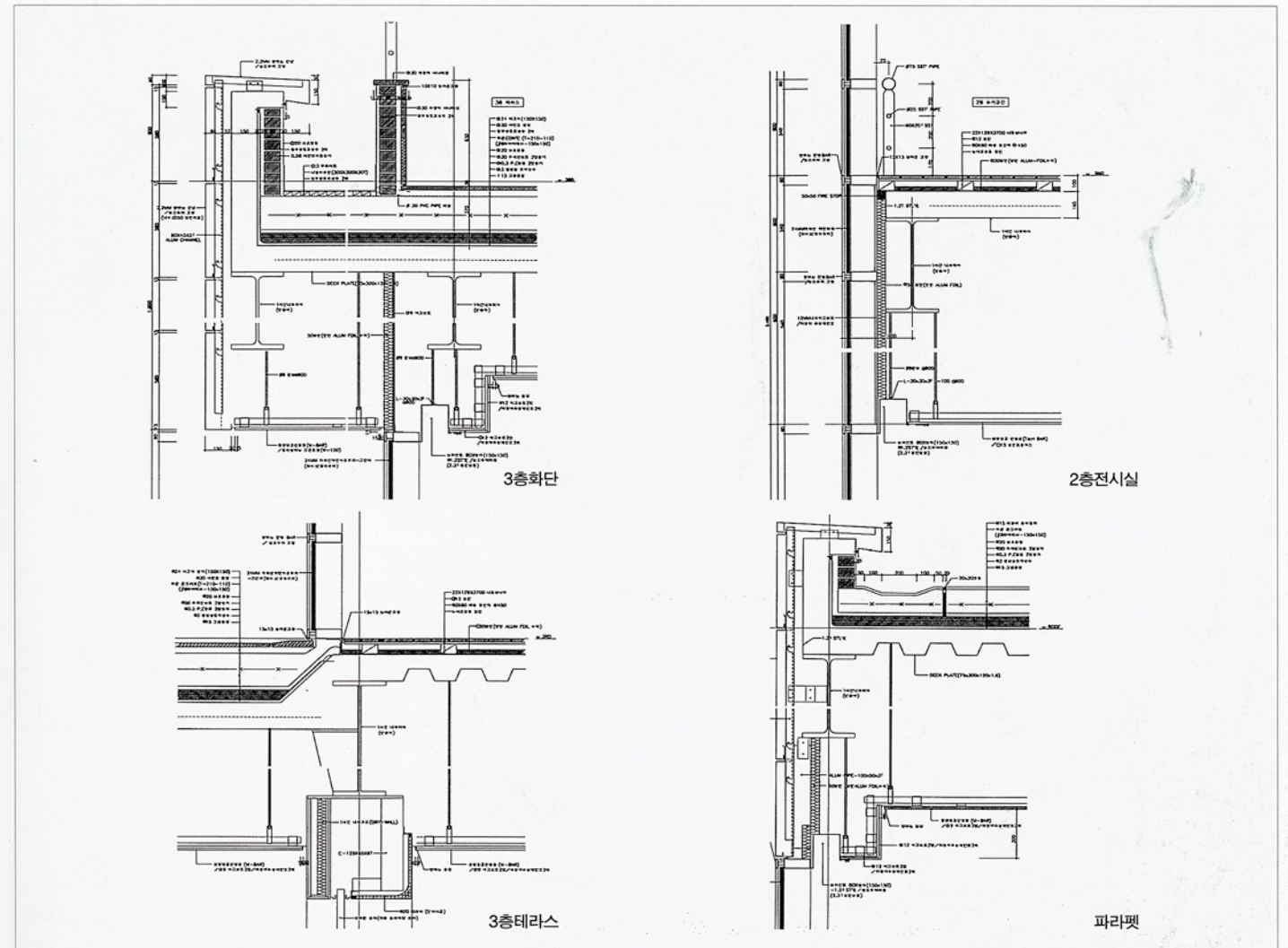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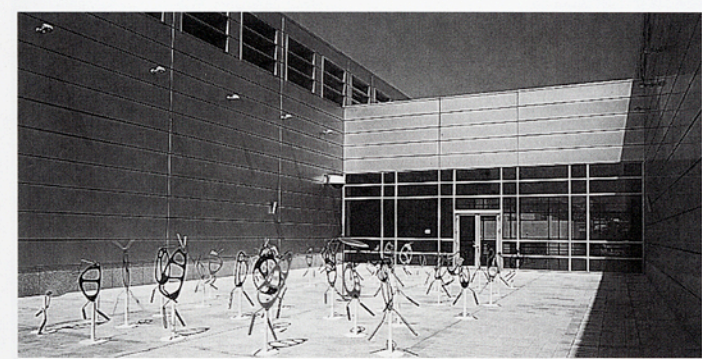


Location 1413Woo-dong, Haewoondae-gu, Pusan (within the Olympic Park)
Site Area 21,560㎡
Area Classification Natural Forest District, Park Area
Program Exhibition Facility(Museum)
Structure Steel Structure, Partial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Basement Parking Spaces)
Stories 3 Stories, 2 Basement Floors
Building Area 4,777.14㎡
Total Floor Area 21,425.70㎡
Building Coverage Ratio 4.12%
Gross Floor Ratio 9.83%
Total Landscape Area 8,652.2㎡
Exterior Finishings Wall - 2.2mm Aluminum Panel, Plastic Coating

Wall of B1 - Granite
 Windows - 24mm Ultraviolet-Blocking Pair Glass, 18mm Colored Pair Glass
 Roof - ㉑1 Sandwich Panel, 0.5mm Bronze Finishing(Standing Roof)
Total Number of Parking Spaces 153(Plus 5 for Buses)
Design Lee Gil-Joo, Lee Bong-Doo, Lee Sung-Yup
Construction Management Ilshin Construction Managements
Construction Daewoo Engineerings, Ja-yoo Constructions
Structural Design Ilshin Architects
Mechanical Installations Hyupjin Mechanics
Electrical Installations Phil Engineerings
Design Period June 10, 1993 - July 30, 1994
Construction Period December 12, 1994 - February 25, 1998



부분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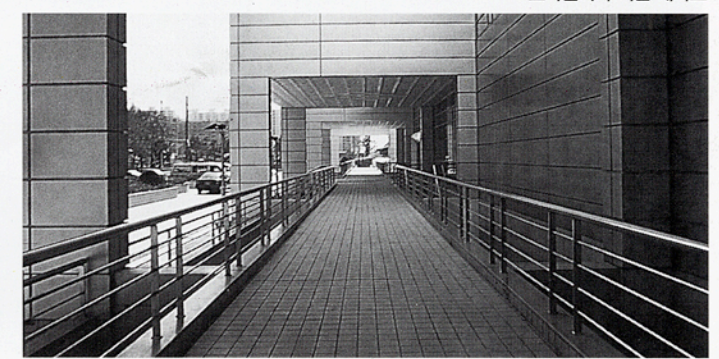
육외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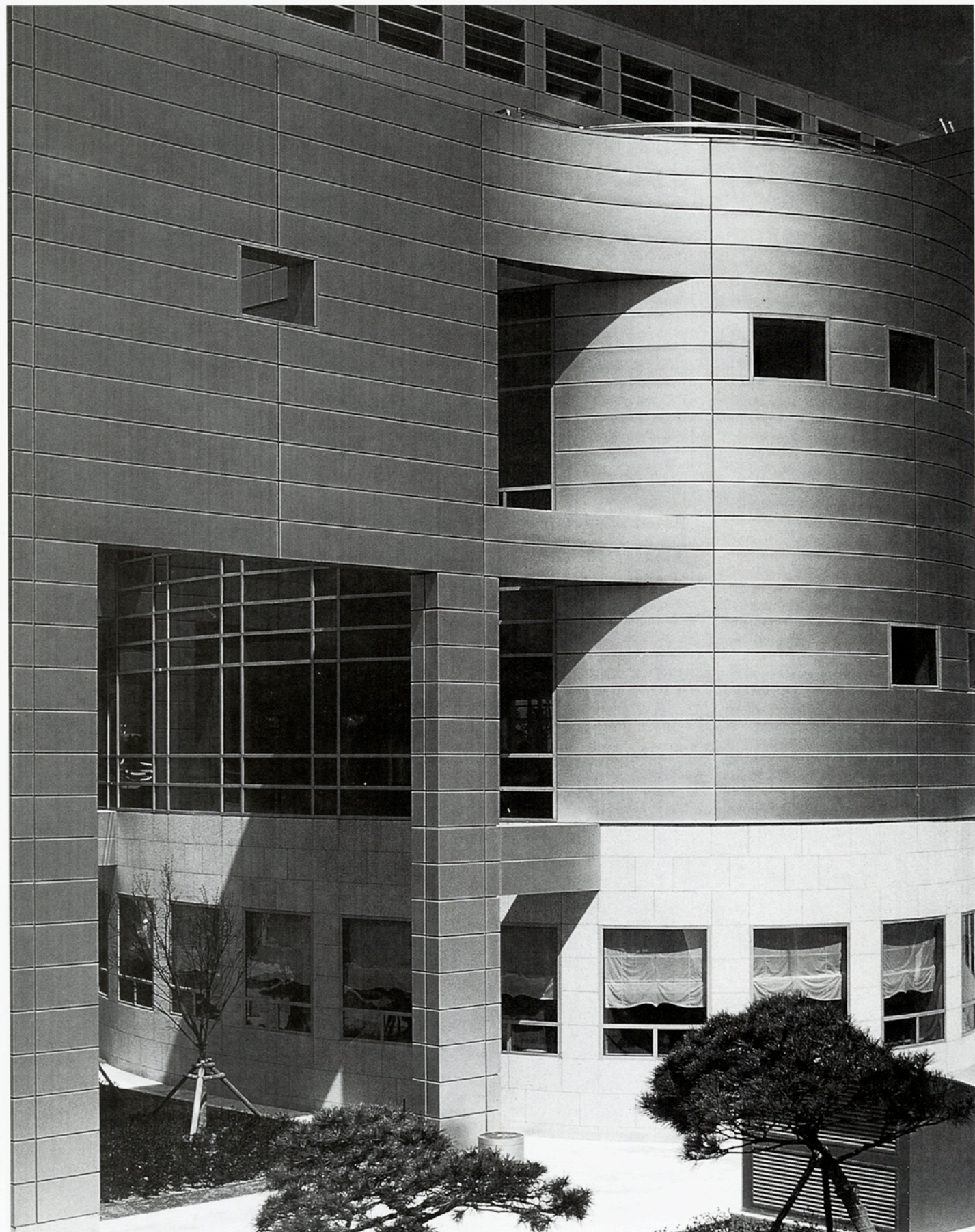
조각전시가 되는 테라스



벽천



선릉가든 위 브리지보드



스텝가든쪽의 곡면으로 처리된 입면



남쪽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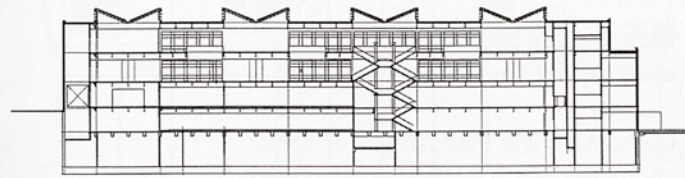
스텝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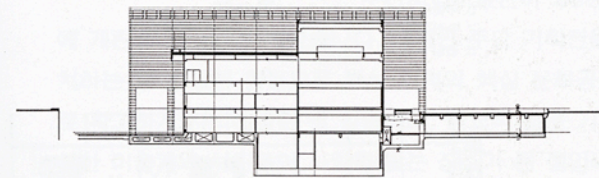
올림픽공원쪽에서 본 전경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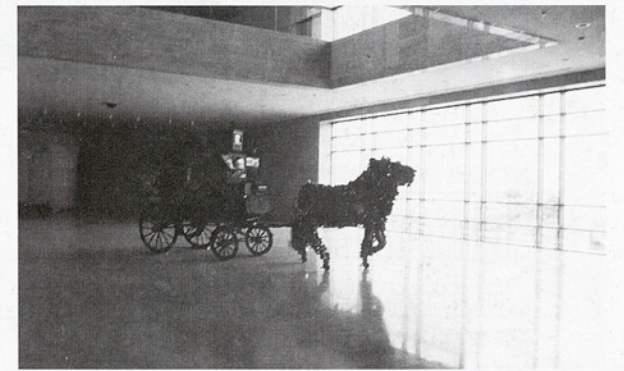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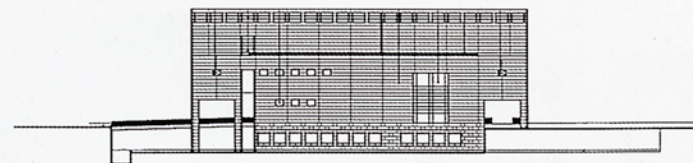
카페테리아



조각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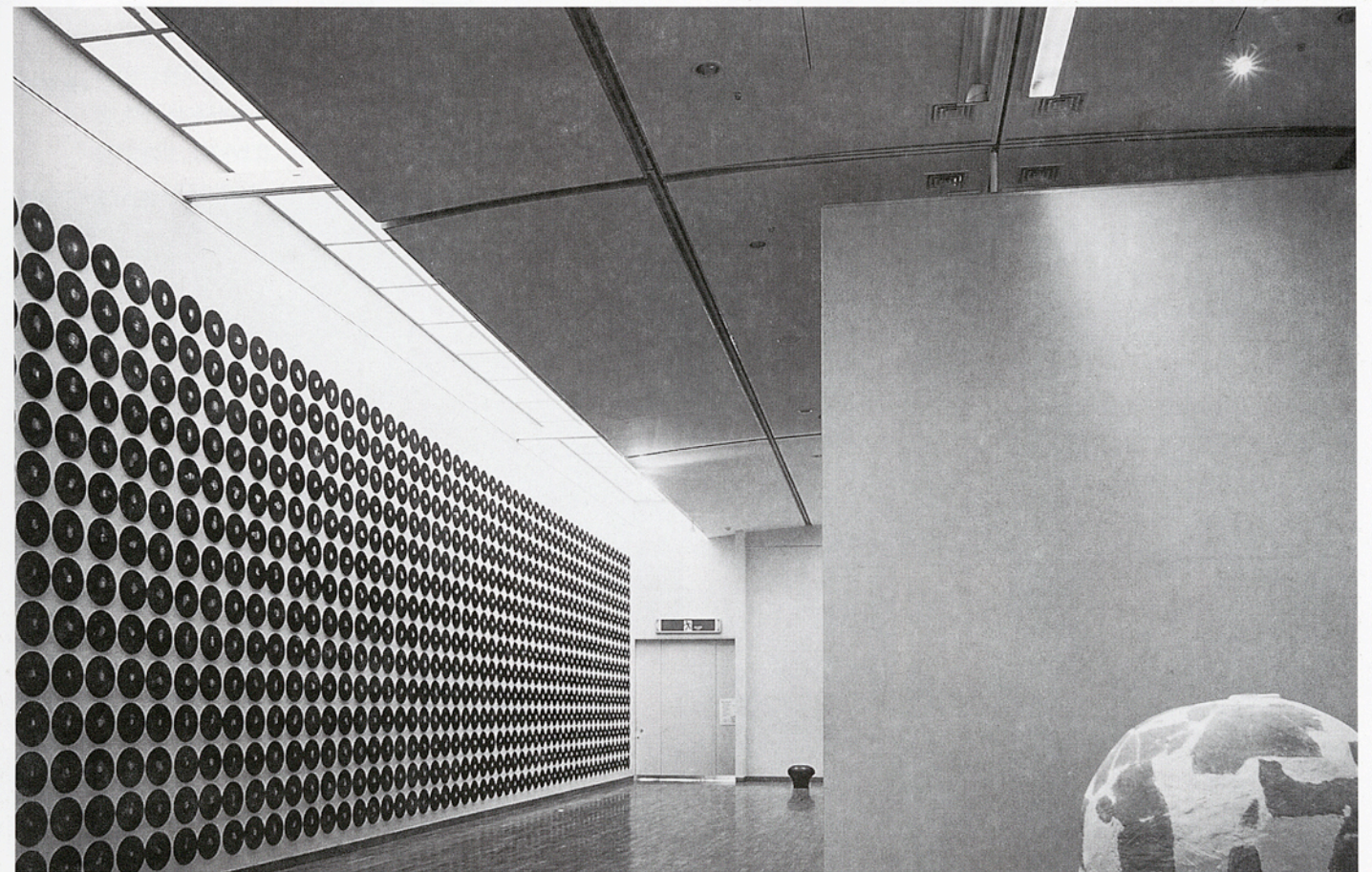
중앙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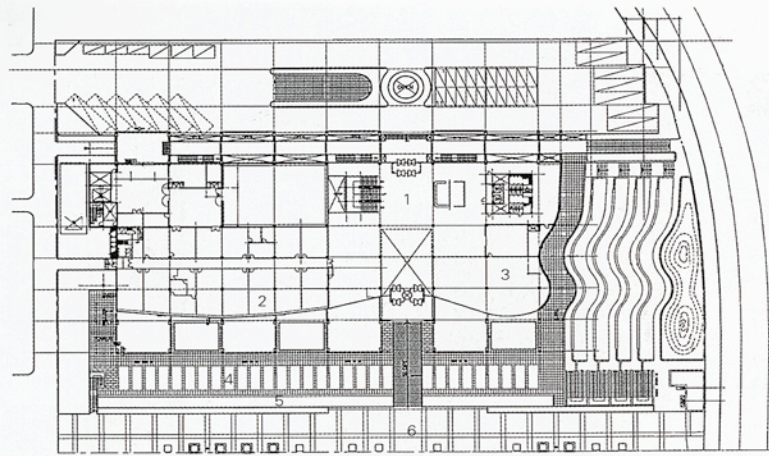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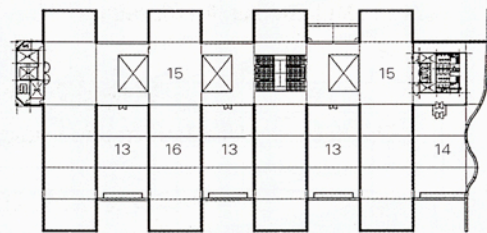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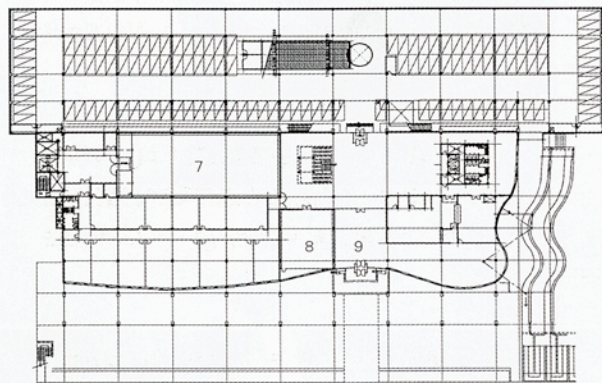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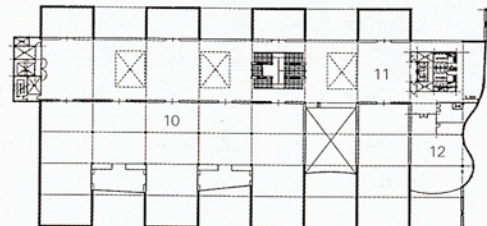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1. 로비
- 2. 사무실
- 3. 다목적실
- 4. 선관가든
- 5. 박천(인공폭포)
- 6. 주출입구
- 7. 수장고
- 8. 강당
- 9. 레스토랑
- 10. 기획전시실
- 11. 조각전시실
- 12. 도서실
- 13. 테라스 조각전시장
- 14. 옥상정원
- 15. 홀
- 16. 상설전시장



원경(야경)

단순성과 간결성의 조화
The Balance Between Simplicity and Compactness

건축사/이용흠(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담자/강 혁(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 Yong-Heum & Khang Hyuk
일시/99. 6. 10. (목) 14:00~
장소/일신설계



대담광경(왼쪽: 강 혁, 오른쪽: 이용흠)

강 혁 부산시립미술관이 98년 봄에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요 기획전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부산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산 미술계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된 셈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93년 전국 설계경기에서 일신설계가 당선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용흠 부산시립미술관은 93년도 당시 전국현상설계를 통하여 당선작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미술관이란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성격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표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찾고 직접 현지로 가서 미술관 사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미술관에 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개념정리도 완성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항구도시라는 딱딱하고 거친 감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문화시설이 건립되므로 해서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벗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열의는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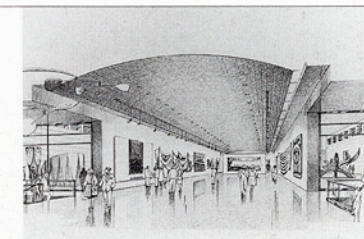
고 봅니다. 결국 설계자의 정열과 부산시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술관이 현재 위치에 건립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강 혁 이 프로젝트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개념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셨는지, 미술관 건축에 대해 평소에 무슨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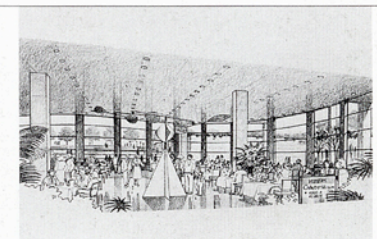
이용흠 저는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설계한 김벨미술관(Kimbell Museum)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재료자체를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작품을 감상하는데 관람객의 시선 집중성을 갖도록 하였다라는 점과 작품에 맞는 공간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설계구상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팀원들과 문화시설 측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일본을 견학하면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 부지의 입지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상징성 부여와ダイナミック한 디자인 및 지역민에게 친숙한 건물로 오래도록 인식되게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조감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전시실부분투시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카페테리아부분투시도)

강 혁 이 미술관 설계에 발주측의 주된 프로그램이나 요구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대개의 설계경기가 부실한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용흠 조금전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미술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백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과 연계성, 미술관의 성격 규정, 필요시설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큐레이터(학예관)를 선정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현상설계 당시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당시부터 이런 부족한 것까지 포용해서 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 혁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미국건축가와 협동설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셨는지요?

이용흠 미술관과 박물관같은 문화시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복잡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었고, 이 미술관을 진행하는데 개념정리를 현대적 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는 관계로 서구 현대건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건축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RBAN Design 을 전공한 미국의 건축가와 주로 초기 개념 스터디 단계에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FAX로 주고받으면서 유선으로 작가의 의도하는 바를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 혁 현재의 건물은 초기 당선안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까? 또 초기 설계의 주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는지요?

이용흠 현상설계 당시 때부터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크게 이미지를 흔들은 점은 없었고,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기술심의 때 위원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약간의 조정과 주변의 도시계획의 변경(광안대로)으로 전면부 옥외 조경 부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초기안과 같습니다.

강 혁 미술관은 공공 문화시설로서 그 입지조건과 부지의 맥락이 절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손쉬운 접근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여기에 좌우되니까요. 해운대구 수영비행장 옆 올림픽 공원의 한쪽에 자리잡은 부산시립미술관은 이 점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함께 지닌 사이트입니다. 또 그 사이 부지 주변의 여건과 도시 환경 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지 조건을 해석하셨는지, 또 무엇에 주목하셨는지요?

이용흠 계획부지의 주변은 크게 관광 위락중심지인 해운대구역과 수비삼거리 및 정보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이고, 남측에는 서울올림픽 요트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휴식 및 위락공간인 올림픽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 및 타 지역 관람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다는 점이 타 미술관과 입지 선정상에서 유리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외곽지역으로 벗어나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미술관을 신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립미술관 부지와 같이 쉽게 접근하고 광장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가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갖게하여 올림픽공원 전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고, 부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변화성과 관람객의 동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크가든을 형성시켰습니다.

강 혁 현재 시설은 올림픽 공원을 전면에 두고 수영로에 수직인 방향으로 강한 선형(Linear)의 일자 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 및 주변과 관련하여 주요 배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올림픽공원의 축과 미술관의 배치축을 일치시켜 올림픽공원내 소형의 조각공원을 향해 정면성을 부여하였고, 올림픽공원과의 최대한 연계성을 살리도록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주변 휴식공간인 선크가든과 스텝가든 등 완충공간을 두어 리듬감을 갖도록 하였고, 주 진입부 및 중앙부, 후면부로의 연계성을 블록화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 동선을 주전시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여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선상으로 보면 보행자동선과 주차동선을 확실히 분리하였고, 보행자 동선이 2, 3층 전시실로 연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바로 곁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광안대교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놓이는 등 맥락상의 변화가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치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요? 또 교통체계와 접근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고가도로가 정보단지부지와 계획부지사이 40m 도로측으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소음차단 및 미관상 주차장 출입구를 우동천 복개 부분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장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보단지 조성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려면 고가도로가 시선차단과 연계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주차출입구를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고, 스텝가든도 일부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계는 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40m 도로에서 한 차선을 확보하여 미술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어 미술관으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혁 과천 국립미술관처럼 '공원내의 미술관'이란 개념은 동일하지만 그 도시적 입지나 경사도,

접근성 등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공원과 미술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흠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정적인 공간이 강한 공원의 위치에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어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적지의 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 미술관부지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는 입지조건이 다르지만 올림픽공원이란 도심속의 소공원을 갖고 있어 지역민들이 관람하기 위해 부지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첫째로 미술품을 관람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둘째로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동선의 변화성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 혁 이 건물은 부지 전면, 즉 공원 내에서 정면을 보기보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며 측면을 볼 때 더욱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합니다. 외관은 역삼각형이 반복되는 지붕 라인으로 해서 정체성을 지닌 것 같으나, 속지는 미술관으로서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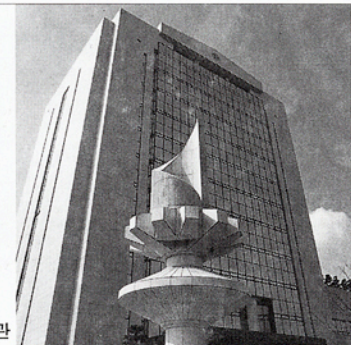
이용흠 현상설계당시 지역적인 이미지 부각과 지역민이 동감하고 친숙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 부여에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였고, 현대의 문화시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이내믹한 형태와 재료의 하이테크(High-Tech)한 특성을 갖도록 한 점이 있고, 외부의 단순성 및 내부공간의 간결성의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방금과 같은 단순하다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은 건축물 그 자체가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이미지 및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며, 보는 이에게 오래도록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시립미술관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김벨미술관에서 그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였고, 간결하고 단순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문화회관



울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과 소극장배면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금청구청사



금청구청사: 아트리움



국제신문 사옥

강 혁 미술관 건축을 스스로 예술적 조형물이 되고자 하는 경향과 내부에 예술품을 기능적으로 담는 용기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굳이 나누다면 이 미술관은 후자에 더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전시공간이 충실하게 외적인 건물의 외관, 그것도 추상적인 형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모던한 건축으로 느껴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용흠 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역삼 각형 네 개의(바다위의 범선상징) 지붕을 형성하여 반복되어 가도록 건축물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내부적으로 반복되는 네 개의 범선자체가 전시실 및 로비로 공간을 형성시켜 관람객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의 형성 및 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부여하기 위해 스터디를 많이 하였고 동선처리도 주 동선기능과 부 동선을 조화있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형태에 대한 비평에 좀 더 실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 혁 이 건물의 외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후면에 반복되는 벽체의 면과 그 실루엣, 그리고 그것이 지어내는 입체감과 음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변에 사는지라 매일 이 건물을 보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상당히 표정이 바뀝니다. 특히 야경은 조명이 훌륭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색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마감을 하여 볼륨을 둘러싸는 면들을 이루고 조인트가 조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시립미술관을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하고, 이미지 부각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외장재를 복합알루미늄 패널로 선정했는데 하이테크(High Tech)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지위치가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의 외장재료가 선택의 폭이 좁았던 면도 있었지만 현대적 미술관을 표현하는데 현재의 재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조인트(T=30mm)를

선택한 것은 외벽에 계획의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조형의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을 처음 하다보니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 혁 평면을 볼 것 같으면 매우 체계적(Systematic)이며 합리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과 동선공간,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관계가 단순 명쾌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미술관 건축에서 선호되는 유형의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용흠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할 때 많은 관람객 사이에 끼어서 떠밀리다시피 관람을 하고 나오면서 미술관의 전시공간 인지도가 희미해진 적이 있었고, 장시간동안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설계시 반영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축을 가지는 형태로서 네 개의 전시실이 동서축을 형성하고, 다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서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전시공간의 융통성을 극대화 하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남북 축을 전시공간의 홀과 휴식공간으로 설치하여 신체적인 피로감을 해소시키므로써 작품관람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화성을 높였는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강 혁 외관에 비해 내부공간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설치 미술이라든가 인터리어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비 등 공공공간이 다소 단조롭고 빈 느낌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용흠 미술관처럼 문화시설의 건축

물은 설계당시 공간의 분할과 성격에 맞는 공간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간 작품의 조화가 있어야 비로소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아지며, 조화가 없는 건축물은 가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공 건축물을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더욱 더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아지며, 내부공간이 단조롭고 빈 느낌을 받는 것이 이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 혁 선큰가든 위로 난 브리지를 거쳐 현관 홀에 이르고 로비를 통해 각 층의 홀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명쾌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극적인 공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타 미술관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공간의 연출을 추구하기에 상대적으로 받게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흠 이 미술관의 특징 중 하나가 매스의 볼륨감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또한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지하층에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하고 관람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광장지점에서 1층 로비로 바로 진입하도록 연결브리지를 놓아 연계시켰는데 여기에서 선큰가든을 바라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 혁 각 층 홀을 연결하는 계단은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계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시선도 다양하게 연결되고요. 그러나 경사가 조금 급하고, 핸드레일이라든가 설치물 등에서 부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의견을 말해주시지요.

이용흠 미술관 중앙지점에 각 층을 연결하는 주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시설계시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에 의해 반영되어 설치되었는데 관람자가 걸어서 올라가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이 미술관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가미시켰는데 관람자의 시각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강 혁 천장이라든가 곳곳에 문화시설에 걸맞는 고급스런 재료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내부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경제적 제약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흠 이 미술관의 내부에는 대부분이 건식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전시실 벽면은 석고보드위 마직천, 그리고 홀은 대리석계통인 트래버틴으로 마감하였으며, 바닥은 전시실과 3층 홀에서는 목재 플로링으로 마감하였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리석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충분한 재료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의 분위기에 맞는 재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전문가의 발주없이 건축설계안에서 처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 혁 여느 미술관과 달리 홀이 매우 밝고 조각을 전시하는 테라스로 통하는 큰 창을 통해 주변 경관이 많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이용흠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외부의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도입을 시도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려 관람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층 조각테라스 홀을 12m 간격으로 두어 직접 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부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당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 혁 1층 로비와 공공 공간의 바닥



울산 제2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시의회 옥외 휴게공간



동래초등학교



부산기념관



문신미술관

을 트래버틴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3층 홀 바닥은 마루인데 비해 2층홀은 1층과 같은 트래버틴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루 바닥이 더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어떠신지요?

이용흠 전시실 바닥 및 3층 로비를 관람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재로 선정하였습니다. 2층로비와 3층로비가 재료 선택에서 다른 점은 2층을 주로 기획전시위주로 전시가 되고 로비는 조각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당시 개념정리를 하여 1층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2층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층(상설전시)은 2층(기획전시)과 달리 작품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람자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 선정부터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3층전시실에 하나의 전시실을 설치미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로 자체를 달리하여 작품성격에 맞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전시공간은 미술관의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 형식이 있습니다만, 이 미술관에서는 동일한 모듈의 전시공간의 반복과 조합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이 미술관은 전시성격별 특성 있는 공간구성 및 최대한의 전시벽면 확보에 공간구성을 계획하였고, 공간구성별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층에는 대공간 및 소공간의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전시방법 확보, 전시공간의 분할, 통합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3층 전시실은 12m 폭으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설전시공간 확보와 옥외 테라스를 이용한 조각전시공간 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면부 야외조각공원과 옥외 테라스조각 홀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과 수장 계획은 화물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하역계획 차원에서 대형화물은 1층 수장고에 위치하고, 중,소형화물은 지하1층 수장고에 둘 수 있도록 하여 반입과 수장에 편리하도록 하층부에 위치하였습니다.

강 혁 제가 보기에 단위 전시공간의 크기가 미술품을 담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설치미술도 별 어려움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방형 모듈의 반복이다 보니 다소 공간의 분할에서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은 대형 전시공간이 하나쯤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할지도 자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용흠 계획당시 전시실 모듈은 폭 12m 간격으로 반복시켜 전시공간을 최대로 확보하여 보편 타당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계획하다보니 변화성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층고를 그 당시 수영비행장 고도제한이 있는 관계로 2층에는 6.0m, 3층에는 6.6m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형 전시 작품을 전시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 혁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3층 전시공간이 지붕의 요철형태를 내부에서 반복하면서 자연광이 스며드는 천장이기를 기대했는데, 다소 밋밋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천장 면에 여러 장비들이 노출되어 전시공간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용흠 3층 상설전시실 상부에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전시벽면에 빛이 확산하여 달도록 처리한 과정에서 입체감이 조금 상쇄되어 밋밋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강 혁 이 미술관에서 특이한 것은 비교적 큰 선크가든이 도입되고 지하 1층에 많은 시설과 기능이 들어간 점, 그리고 그것이 이면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선크가든 앞에 훨씬 넓은 외부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은 밝고 진입이 편리하여 호감이 갑니다만, 공공 교통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

재, 마치 주진입부처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평지에 큰 선크가든이 도입된 이유와 외부 공간 조성의 요점, 주차장 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변화성을 적극도입하여 하부층의 자연채광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선크가든을 현재레벨에서 5.4m 아래에 있게 하고 수장 공간을 도입하여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차원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조경공간 면적보다 약 2,000평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야외조각공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와의 연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지하1층 선크가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어 주차장의 질적인 면에서 미술관의 품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강 혁 부산시립미술관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용되는 현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이나 측면을 열거하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용흠 별도 전문가의 인테리어 설계, 가구설계, 기타 개관까지 필요한 설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과, 사전에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전문성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 혁 미술관을 담는 공원의 활용과 주변에 들어설 시설들, 예를 들자면 길 건너의 컨벤션센터와 수영만의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하철 2호선의 완공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적 맥락에서 장래 부산미술관의 미래상을 한번 가능해 보시죠.

이용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컨벤션 센터를 비롯하여 정보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에 올

림픽공원과 미술관을 연계하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릴예정이고,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될 시점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될 경우 미술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에 대한 의욕과 건강이 계속된다면 현 시대의 건축가들의 과제인 현대건축과 한국 전통의 접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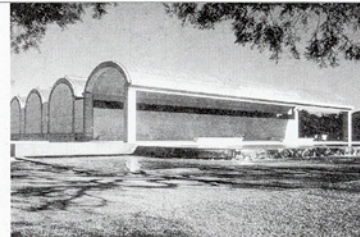
강 혁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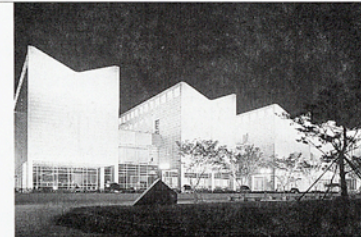
동명정보대학교 본관



과천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김인석)



김벨미술관(루이스칸)



부산시립미술관(서숙야경)



부산시립미술관(식당에서 본 스텝가든)



부산시립미술관(스텝가든)

장소와 시대 그리고 테크놀로지

Place, Era and Technology

우신구/ 인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Woo Shin-Koo



부산시립미술관의 외적 형태는 인상적이다. 은회색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현대적 감수성에 호소한다. 이 건물의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고축창을 만들기 위해 톱날형태가 된 지붕일 것이다. 물론 이 지붕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받아들여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현상설계용 설명에도 부합하지만 그런 실용적인 기능보다도 삼각형의 반복을 이루는 형태의 근거로서 더욱 중요하다.

두 개의 삼각형은 하나하나의 전사실 단위와 결합되어 역박공의 단면을 가진 단위 매스를 형성한다. 역박공형 단위 매스의 반복은 미술관 본체와 직교하면서 미술관 외관

의 큰 틀을 이루는 것이다. 전사실이기에 당연히 창이 배제된 벽면이 그 단위를 에워싸고 있다. 창은 상부의 톱날지붕 측면에만 설치되었다.

톱날형태의 지붕, 단위 매스의 반복, 무창의 벽면, 금속성의 마감, 이런 외관상의 형태적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장 혹은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공장건물의 기능성과 부품조립의 효율성, 금속재료의 즉물성 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물의 강렬한 형태와 마감은 기계미학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비롯된 기계미학의 연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미술관 부지가 가진 장소성이다. 이곳은 과거에 '해운포'라고 불리웠던 넓은 포구로서, 수영이란 말은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즉 좌수영에서 비롯되었다. 근대화 이후에는 이곳에 비행장이 들어섰다. 미술관 측면 맞은 편 넓은 부지에는 아직도 비행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근대화 이전의 좌수영이 통솔하였던 전함들이 그려졌듯이, 은백색의 비행기들은 동시대의 최첨단 기술이었다. 그것은 기계시대의 가장 정교하고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또한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가 들어설 부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일대는 과거에는 전함을 건조하고 유지했던 군항에서, 기계문명의 총아였던 비행장으로 바뀌었다가 앞으로는 정보통신문명의 첨단지역으로 변화될 지역인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까닭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틈과 경사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산지역과 달리, 수영강 하구를 따라 모래펄로 이루어진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매립공사를 통해 그 평지는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들이 과거부터 선박, 비행기, 정보와 같은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잇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장소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공공시설에 적합한 장소로서 과거부터 인식되었던 것이다(이 주변에는 시립미술관 외에도 요트경기장, 올림픽공원이 있고 컨벤션 센터, 월드컵경기장 등이 계획 또는 건설되고 있다).

이 미술관의 2층 홀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한 점 전시되어 있다. 기계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 룬마차이다. 말을 조정해서 마차를 끄는 것은 여러 대의 모니터로 조합된 비디오 마부이다. 마부 뒤의 마차 좌석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소통-운송(Communication Transporta)'이다. 미술관 큐레이터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모하게도 이 제목은 바로 미술관이 건립된 부지의 장소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영비행장을 이착륙했던 국제여객기들을 타고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 장소는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였을 것이다. 대형 비행기의 반짝이던 금속제 표면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미술관의 금속성 외부 마감재로는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계자인 이용홍씨 역시 이 건물의 형태를 범선과 연결지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미술관은 마치 거대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연상시키면서 부지의 장소성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술관 내부의 공간구성은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다. 관람동선의 핵심은 넓은 중앙홀과 중앙계단이다. 중앙

What primarily strikes the mind is its impressive form of the exterior: The silver aluminum panels of its surface correspond to the ultra-modern taste, while the roof displays a dynamic shape of a sawtooth. It enables the invitation of sunlight into the galleries, thus promote the energy-efficiency of the building, but the emphasis of its purpose is not on this functional aspect but on its justification of the finalized form - a repetition of triangles.

Two of these shapes, combined with a unit of the gallery, create a section with overturned triangular roof, whose multiplicative layout runs perpendicular to the main body of the museum and determines the frame of the overall exterior. Walls, naturally devoid of windows since they form the envelope of the galleries, surround these units. Openings, on the other hand, are only made in the sides of the sawtoothed roof.

This shape of the upper cover, the repetition of unit volumes, walls without windows, and finishings with metallic material synthesized - in other words, view of the exterior as a whole, arguably suggests an image of a factory, or a gigantic machine. They allude to the functional precision of a factory building, the efficient placing of its components, and the objectivity of metallic substances.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formal features of this building were derived from

machine aesthetics.

This comprehens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condition of the site. It is where the naval port of Haewoonpo was located, which was replaced, after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with an airport facility, whose trace is still visible in the large unoccupied space across from the Museum. Just as the battleships of the port were in that era, the shiny silver airplanes were then products of state-of-the-art technology. They were the very symbol of advanced science in the mechanical age.

It is also the site of Pusan Information Industry District, one of the city's most ambitious projects for the future. To summarize it diachronically, the region first started out as a naval port for constructing and repairing battleships, and then transformed into an airport, an embodiment of mechanical civilization, and now, looking forward to go through yet another major reconstruction as a site for the research and industri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al technologies.

Why it is capable of providing a space for such diverse functions is that,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of Pusan which is sloped along what is in-between large mountains, this place,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Suyoung River, is largely a plain ground, whose total area has been increased with the reclamation works.

The reason so much technological fields of ships, planes, and telecommunications we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can also be found in its mediating position between the stream and the sea. It has long been acknowledged as an ideal site for a technology-oriented public facility. It continues to act this role with its upcoming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center, as well as yachting stadium, Olympic Park, and grand stadium for the World Cup games.

In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is placed a video artwork of Nam-june Paik - a wagon propelled by a horse made of mechanical parts. What controls the horses is a groom composed of multiple monitors, and a lady dressed in traditional clothes sits inside the wagon.

The work is titled Communication Transporta.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urator of the Museum had the fact in mind, but this title curiously corresponds to the character of the facility's site.

Those who are accustomed to the sight of international airliners arriving and departing from the Suyoung Airport will be familiar with the metallic surface of the Museum, for it is very suggestive of the mechanical bodies of the airplanes. Architect Lee Yong-heum also mentions the shape of an ocean liner as the Museum's prime source of form. It seems that the Museum's

intentional analogy to grand ships is an answer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site which was anything but characterless.

The composition of the Museum's indoor spaces is simple but rational. The focal point of the visitor's circulation is the spacious center hall and the main stairway. The former is extended along the length of the exhibition floor where the galler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opposite ends. With this crisp planning, one need not worry about getting lost and losing one's sense of direction amongst the interlocking spaces. What connects the halls of each stories is the main stairway that sits in their middle, that, while the galleries are united by the main hall, vertically integrates the various halls.

Between the galleries are large windows open to the outside view which provide the visitors with an alternative sight from the artworks.

The main finishing materials of the interior, minus those accessories from the stairs connecting the first-floor lobby and the galleries, are paint or hemp cloth over gypsum board, travertine marble, and wood. With warm color and texture, they succeed in providing a sense of uniformity in the indoor spaces.

But with all these merits, one thing that cannot be fully accepted is the strange absence of technology, which had such a

홀이 전시층의 가운데에 길게 이어지며 각 전시실은 이 홀의 양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가신 부대낌이나 위치감의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각 층의 홀을 연결하는 것은 홀 가운데 자리잡은 중앙계단이다. 전시실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 홀이며, 각 층의 홀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계단이어서 움직임이 명료하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외부의 경관이 홀 내부로 이어져 작품의 연속적 감상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든다.

1층로비와 전시층들을 연결하는 계단의 일부 약세사리들을 제외한 내부 마감 즉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혹은 마직천, 트래버틴 대리석, 목재 플로링 등은 따뜻한 질감과 색감으로 거대한 내부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외부의 형태와 마감의 구성에서 그토록 중요한 주제를 형성했던 테크놀로지는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흔적은 계단을 지지하는 기둥의 마감과 상단에 붙여놓은 금속제의 장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내부 마감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자. 미술관 건물과 그 속에 전시된 미술작품 사이에서 평행적인 관계를

상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또한 거기에 사용된 형태나 모티프 혹은 주제가 유사하다면 분명히 그 두 작품에는 공통적인 시대의 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백남준은 전자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륜마차에 모니터들을 조합해서 만든 마부가 한복을 입은 여자를 태우고 가는 비디오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이 마차를 끄는 것은 기계말과 비디오마부이며 그에 끌려가는 것은 전통적인 이륜마차와 한복을 입은 규수이다.

너무 단순한 해석일런지는 모르지만 백남준의 작품은 지금 현재의 문명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가 마차와 전통의복을 입은 사람과 결합된 그 묘한 이중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는 말과 마부, 그리고 마차를 탄 사람이라는 과거의 풍경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는 전자 테크놀로지이다. 형태는 과거의 것이되 그 내용을 비디오 테크놀로지로 치환함으로써 현대의 영상 및 미디어 문화, 그것이 초래한 미술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과 수용방식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주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술관과 백남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백남준의 설치미술이 과거의 외부와 테크놀로지는 내부를 가졌다면, 부산시립미술관은 테크놀로지는 외

meaningful role in the decision of the exterior form, in its application in the inside. Merely glimpses can be found in the metallic ornaments of the columns that support the stairways. It has become the disparate minor element within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other look at the work of Paik. It may be a futile attempt to form a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Museum building and the works it exhibits. But since these two "works" were produced in a similar period with a shared form and motif, we can derive a common zeitgeist or issue from them.

Paik's work, as mentioned above, displays a horse made from various mechanical elements that is connected to a wagon run by a horseboy, or a set of monitors, and occupied by a traditionally-dressed woman. In other words, those who lead are the mechanical horse and the electronic groom, and what are led are a wagon and a young lady, both in traditional styles.

Risking the criticism for a over-simplified interpretation,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theme of the work is in the uneasy schism between the two different, or contradicting, values of technology and tradition. What is presented as a whole is an age old view of a horse and groom, a wagon and a passenger. But what comprise its inner core is the electronic science - which ends up as a

work whose form is that of history but with a transplanted content of modern technology. It delivers a message on the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and its reception of ar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media culture.

With its shared theme of technology, the Museum and Paik's work actually stand in opposition to each other in their attitude towards it. While the video artwork has an aged body with high-tech content, the building is covered with the technological surface and has a traditional interior.

The recent exhibitions of the City Museum are largely occupied with installation works, which, as well known, started out as an alternative form of art that seeks to transcend the limits of traditional paintings and sculptures. They were successful in their attempt to break the flatness of the old mediums,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ior space into their works. They are concerned with the abolishment of traditional categorizations, passionate to invade even into the realm of architecture.

The ultimate effect of this trend is on the old concept of appreciating artwork, which was based on the established distance between the viewer and the work. It is not a mere accident that the natural lights invited into the galleries through toplights often get

blocked in these exhibitions.

부와 전통적인 내부를 가지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기획전시하는 최근의 작품들 중에는 설치미술들이 많다. 알다시피 그 설치미술은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타난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이 가졌던 평면성과 내부공간의 부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성을 담으려고 하는 작품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설치미술은 회화, 조각의 전통적인 범주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건축의 고유영역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같은 일정한 거리를 둔 관람자와 대상이라는 전통적 미술감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고층창을 통해 어렵사리 유입된 자연광이 설치미술의 전시시 종종 가려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미술의 국면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배경에는 항상 과학기술의 자극이 있었다. 원근법, 사진, 기계, 현대 물리학, 전자공학, 컴퓨터 등은 미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건축 역시 과학기술과의 교차지점에서 많은 변화의 계기를 발견해온 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혹은 그 형태의 새로움을, 또 때로는 그 빠른 움직임과 이동을 건축은 동경해 왔다. 종종 건축은 스스로 기계가 되고

influences are yet to trigger major reconsideration o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are raising ground-breaking questions on the essence of them.

What has motivated the change of aspects and styles in the world of art has always been f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vention of perspective representation methods, photography, machines, and the developments in modern physics, electronic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have affected not only the form but the content of art.

Architecture also has developed through its crossings with the modern technolog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chitects longed for the mechanisms or forms of the machines, sometimes fascinated with and seeking to embody their rapid movements. Architecture, in various ways, sought to be the machine.

Bu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of mechanical culture to architecture in terms of literally introducing machinery and automatization into installations of the buildings is to ignore the medium's artistic connotations. In the same respect, it would also be a rather naive solution to incorporate technology merely on its outer skin.

Some contemporary artworks using computers and video technology are gradually defying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ystem of art museums and galleries. Though their

자 했다.

하지만 건축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내부 설비의 기계화·자동화로 해석한다면 건축의 예술적 함의를 부정하는 일일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건축에서의 테크놀로지를 모던한 외관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주제를 일차방정식으로 풀은 결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컴퓨터와 비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한 현대의 일부 미술작품들은,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미술관-갤러리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한다. 현대미술은 전통적인 미술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운송-소통을 포함한 테크놀로지는 장소적·시대적 주제를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표현의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현대와 미래의 미술작품들과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현대의 미술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가능성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시립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건축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시대적 주제에 대한 사유와 그 건축적 전개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수영만이라는 장소에서 건축가가 먼저 하이테크라는 주제를 던진 부산시립미술관이 현대건축으로서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Though technology including those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taken as a temporal, spatial theme for the City Museum, the real concern should have been made in the establishment of Museum itself, its presentation of works and its stance towards the viewers, when, in the information-based era, more and more works of art are accepting high-tech as both their theme and form.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Museum is not an issue here. While some shortcomings can be explained by its limitations as a public project executed by the City, this status itself should have catalyzed more considerations on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age and its responding architectural strategies. In this project placed on a heavily coded site, the architect suggested "contemporary" technology as its primal theme, but the finished work seems to be lacking in what makes an architecture "contemporary" after all.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Museum is not an issue here. While some shortcomings can be explained by its limitations as a public project executed by the City, this status itself should have catalyzed more considerations on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age and its responding architectural strategies. In this project placed on a heavily coded site, the architect suggested "contemporary" technology as its primal theme, but the finished work seems to be lacking in what makes an architecture "contemporary" after all.